

農業勞動人口資源에 관한 研究

朱 奉 圭*

<目 次>

- I. 問題의 提起
- II. 農業勞動人口의 經濟活動構造
- III. 農業勞動人口의 年齡別 및 性別 就業構造
- IV. 農業勞動人口問題의 課題

I. 問題의 提起

우리나라의 國民經濟는 數次에 걸친 經濟開發計劃의 遂行으로 高度成長을 이룩하였으며 이에 따라 農業部門도 相對的으로 낮은 成長率이기는 하나 著실히 成長하여 國民經濟의 成長에 크게 寄與하였다. 특히 主穀生産은 自給水準을 超過하게 되었으며 農家所得의 增大와 함께 農村의 生産環境 및 營農基盤이 크게 變貌되었다.

이와 같은 經濟의 高度成長이 이룩되는 가운데 農業部門에 있어서 農業生産構造의 變化, 農家の 所得的 地位의 變化 그리고 農業勞動人口의 就業面에 많은 變化를 남게 된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農業勞動人口의 就業面의 變化는 經濟의 高度成長에 따라서 많은 農業勞動人口가 非農業部門으로 流出・移動케 됨에 따라 就業構造面에 나타난 變化로서 이에 관한 研究課題는 重要한 것으로 提起되고 있다. 왜냐하면 農業勞動人口의 就業構造面의 變化는 農業勞動人口問題를 提起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本研究는 農業勞動人口의 就業構造變化에 따라서 派生된 農業勞動人口問題에 대한 內容을 分析 究明하고 同時에 그에 관한 研究課題를 定立하고자 한다.

II. 農業勞動人口의 經濟活動構造

經濟開發은 반드시 勞動力移動과 再配分을 초래하게 되거니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1962년부터 시작된 經濟開發計劃의 推進으로 農村勞動人口의 都市로의 流出現象이 늘어났고 勞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農經濟學科 教授

動力的 就業構造에도 많은 變化가 있게 된 것이다.

1960年代에 있어서의 高度成長은 製造業部門의 急激한 成長에 의해 主導되었고 이에 따라서 이 部門에 있어서의 就業勞動力이 크게 增大되었으며 社會間接資本의 擴充이나 서어비스部門의 成長이 活潑하게 展開되어 就業機會의 造成과 더불어 農村勞働人口의 第2次 및 第3次生産部門에로의 移動이 吸引要因의 作用⁽¹⁾ 속에서 活潑하게 展開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人口密度가 높고 또한 過去에 農村人口增加率이 높았기 때문에 工業化 및 都市化의 膨脹에 따라서 많은 農村勞働人口가 非農業部門에로 流出·移動되었음에도 不拘하고 農業에 있어서의 아직도 많은 勞動力이 包容되어 있고 우리나라 勞動力人口 가운데서 農業勞働力의 比重은 대단히 높은 편이다.

1965年에서 1974年까지 우리나라의 總人口, 14歲 以上の 生産年齡人口 및 勞働市場에 參與하고 있는 經濟活動人口의 農家와 非農家別 推移를 보면 <表 1>과 같다.

<表 1> 生産年齡人口 및 經濟活動人口의 推移 (單位: 千名)

區分 年度	總人口	生産年齡人口			經濟活動人口		
		全 國	農 家	非 農 家	全 國	農 家	非 農 家
1965	28,327	15,937	8,985	6,952	8,859	5,233	3,626
1967	29,541	16,764	8,843	7,921	9,295	5,195	4,100
1969	30,738	17,639	8,601	9,038	9,888	5,259	4,629
1971	31,828	18,984	8,283	10,701	10,542	5,094	5,448
1974	33,459	21,148	8,984	12,164	12,080	5,773	6,307

資料: 經濟企劃院, 『經濟活動人口年報』(1972), p.32.

經濟企劃院, 『韓國統計月報』(1975. 9), pp.4~5.

1965年의 農家의 14歲 以上の 生産年齡人口는 898萬 5千名이었으나 1966年을 고비로 해서 그 數가 漸次 減少되어 1971年에는 828萬 3千名에 이르렀으나 그후로 다시 增加되어 1974年에는 1965年의 數字와 거의 같은 898萬 4千名에 이르고 있다.

한편 農家의 經濟活動人口를 보면 1965年의 523萬 3千名에서 多少의 起伏은 있었으나 1971年에 509萬 4千名으로 減少되었다가 이것 역시 다시 增加되어 1974年에는 577萬 3千名으로 1965年 對比 54萬名이나 增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農家 및 非農家別 生産年齡人口와 經濟活動人口의 成長率을 보면 1965~1974年間に 있어서 總人口는 年平均 1.88% 增加되고 있으나 全國의 生産年齡人口는 年平均 3.1%, 全國의 經濟活動人口는 3.6% 成長되고 있어 總人口보다는 生産年齡人口가, 生産年齡人口보다는

(1) 朱奉圭, 「農村人口移動에 관한 變遷과 性格에 관한 研究」, 『農業經濟研究』, 19輯(1977年 11月), pp.79~87.

〈表 2〉 生産年齡人口 및 經濟活動人口의 成長率

(單位: %)

區分 年度	總人口	生産年齡人口			經濟活動人口		
		全 國	農 家	非 農 家	全 國	農 家	非 農 家
1965	2.28	2.8	1.1	5.1	4.9	1.3	10.5
1967	2.08	2.4	-1.8	7.6	2.5	-1.6	8.1
1969	1.85	2.7	-1.6	7.3	2.5	0.1	5.4
1971	1.69	4.0	-3.1	10.2	3.4	-2.1	8.9
1974	1.67	3.5	2.7	4.0	4.1	1.6	6.6
平均	1.88	3.1	1.1	6.3	3.6	1.2	6.8

資料: 經濟企劃院, 『經濟活動人口年報』(1972), p.32.

經濟企劃院, 『韓國統計月報』(1975), p.9.

經濟活動人口가 成長率이 높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表 2〉 參照).

그러나 生産年齡人口를 農家 및 非農家別로 區分하여 그의 內容을 살펴보면 農家에 있어서는 1967~1971년에 마이너스의 成長率을 보이고 있으며 1965~1974年の 年平均 成長率은 1.1%에 不過하다. 그 反面 非農家に 있어서는 대체로 높은 成長率을 持續하며 1965~1974年の 年平均 成長率이 6.3%라는 높은 數值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經濟活動人口를 農家 및 非農家別로 살펴 보면 역시 農家에 있어서는 10年중 3年間이 마이너스의 成長率을 보여주고 있어 1965~1974年の 年平均 成長率이 1.2%에 不過함을 알 수 있으나 이에 反해 非農家に 있어서는 10年間의 平均成長率이 6.8%라는 높은 數值를 보여주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1965~1974年の 10年間에 農村으로부터 都市로 또는 農業部門에서 非農業部門에

〈表 3〉 産業別 就業者構造의 推移

(單位: 千名)

年度	全産業	構成比 (%)	農 林 水産業	構成比 (%)	鎭工業	構成比 (%)	社會間接 資本其他	構成比 (%)
1965	8,206	100.0	4,810	58.6	849	10.4	2,547	31.0
1966	8,423	100.0	4,876	57.9	913	10.8	2,634	31.3
1967	8,717	100.0	4,811	55.2	1,115	12.8	2,791	32.0
1968	9,155	100.0	4,801	52.4	1,282	14.0	3,072	33.6
1969	9,414	100.0	4,825	51.3	1,346	14.3	3,243	34.4
1970	9,745	100.0	4,916	50.5	1,395	14.3	3,434	35.2
1971	10,066	100.0	4,876	48.4	1,428	14.2	3,762	37.4
1972	10,599	100.0	5,346	50.6	1,499	14.2	3,714	35.2
1973	11,139	100.0	5,569	50.0	1,821	16.8	3,749	33.7
1974	11,586	100.0	5,584	48.2	2,062	17.8	3,940	34.0
1975	11,932	100.0	5,477	45.9	2,279	19.1	4,176	35.0

資料: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經濟活動人口年報』(1976).

로의 人口移動이 있었다는 事實을 發見할 수 있게 되고 이는 産業別 就業者構造面에 그대로 反映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1965年에서 1975年에 이르는 就業者의 産業別構造를 보면 第1次産業인 農林漁業에 從事하는 就業者의 比重은 1965年の 58.6%에서 1975년에 45.9%로서 減少傾向을 나타내고 있다는 事實에서 뚜렷하다 할 수 있다(〈表 3〉 參照).

위의 經濟活動人口 및 産業別 就業構造의 推移分析에서 農業勞動人口의 農村地域으로부터 非農村地域에로의 移動에 따라서 많은 就業構造變化를 가져왔음을 알게 되는 것이기는 하나 아직도 農業部門은 他産業部門에 比해서 많은 勞動力을 包容하고 있어 過剩勞動人口 問題를 낳고 있는 것이 事實이며 이는 總人口에 대한 農家人口의 構成關係에서 實證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게 된다(〈表 4〉 參照).

〈表 4〉 總人口 對 農家人口 (單位: 千名)

區分 年度	總人口 (A)			農家人口 (B)			B/A(%)
	計	男	女	計	男	女	
1967	29,541	14,837	14,704	16,078	8,067	8,011	54.4
1970	31,435	15,779	15,656	14,422	7,164	7,258	45.9
1971	31,828	15,985	15,843	14,712	7,377	7,335	46.2
1972	32,360	16,260	16,100	14,673	7,400	7,277	45.4
1973	32,905	16,534	16,371	14,645	7,390	7,255	44.5
1974	33,459	16,813	16,646	13,459	6,797	6,662	40.2
1975	34,681	17,436	17,245	13,244	6,654	6,590	38.2
1976	35,860	18,063	17,797	12,785	6,437	6,348	35.7

資料: 農協中央會, 『農協年鑑』(1976).

農村過剩人口은 潛在失業⁽²⁾, 僞裝失業⁽³⁾ 그리고 過剩就業 및 低能率就業⁽⁴⁾ 등등 여러가지 用語로써 불리워지고 있다.

潛在失業은 녀저에 의해서 使用되어진 農村過剩人口의 概念으로서 그는 潛在失業은 東南 유럽에서 東南亞의 全域에 걸친 人口稠密한 農業經濟體의 特徵인 樣相이라 하고, 農業에 있어서의 慢性的이고 大規模인 失業은 이들 國家가 共有하며 거기에는 늘랄만한 勞動의 浪費가 있다고 指摘하면서 潛在失業問題를 提起한 바 있고 潛在失業을 그는 農業技術을 變

(2) Ragnar Nurkse,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3, pp.32-56.

(3) Charles H.C. Kao, Kurt R. Amschel, and Clark K. Eicher, "Disguised Unemployment in Agriculture: A Survey" in Carl Eicher and Lawrence Witt, eds., *Agriculture in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McGraw-Hill, 1964, pp. 129~144.

(4) 大川一司, 『農業의 經濟分析』, 1956, pp. 94~103.

更시키지 않고도 農業에 從事하는 多數의 人口는 農業生産高의 減少를 結果함이 없이 除去할 수 있게 되는 人口라 定義한 바 있다.

따라서 潛在失業은 賃金勞働에 適用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農村共同體의 家族雇傭의 一形態를 意味하며 農場이나 小耕作地에서 勞働하되 實際로는 生産高에 전혀 寄與하지 않고 단지 그들 家族의 實質所得의 한몫을 차지하고 있는 存在라 하고 보다 專門의 表現으로서 는 廣範한 範圍內의 勞働의 限界生産성이 零이라 主張하고 東南유럽 및 東南亞地域에 있어서 社會的·經濟的·人口學的 諸要因에 基因하는 一集團現象이라고 하면서 이들 地域에서는 그누구를 指定하여 그를 潛在失業者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들 地域에서는 어떠한 代替의 雇傭機會도 없고 總勞働力의 3分の2 내지 5分の4는 土地에 雇傭되어 있고 地域에 따라 이들 農村人口中 15%, 20% 혹은 30%가 潛在失業狀態에 있다고 主張하고 그는 潛在失業이 季節的 失業과 混淆되어 일어나는 수도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潛在失業은 恒常的으로 存在하므로 季節的 失業과 混同될 수 없는 것이라고 定義한 바 있다.

僞裝失業은 존·로빈슨女史에 의해서 使用되어진 用語이나 이는 녀지의 潛在失業의 概念定立과는 異質의인 것이 分明하다. 왜냐하면 로빈슨女史는 通常의 産業生産物에 대한 需要의 減少 때문에 이 部門에 從事하던 勞働者가 解雇되어 生産力이 높은 職業에서 生産力이 낮은 職業으로 移動한다 하고 이와 같이 景氣的 有效需要의 減退로 말미암아 解雇된 勞働者가 劣等職業에 就業되어 있는 現實을 僞裝失業이라 定義하였다는 事實 때문이다.

로빈슨 女史의 이러한 僞裝失業論에 대하여 그것은 先進諸國의 景氣循環에서 結果된 先進國特有의 現象에 대해서 概念을 定立하였다는 點에서 많은 反駁을 받고 있다.

過剩就業 및 低能率就業은 日本의 大川一司가 使用한 農村過剩人口의 概念으로서 그는 農業部門에 있어서 勞働의 限界生産力이 非農業部門에 있어서 勞働의 限界生産力에 比하여 恒常的으로 低位에 있는 就業狀態라 定義하고 過剩就業의 概念은 다음의 다섯가지 特質을 갖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1) 勞働限界生産力의 遞減傾向을 나타내는 概念이라는 것.
- (2) 生産面 더욱 産業에 관한 規定을 前提로 한다는 것.
- (3) 相對的 地位에 관한 概念이라는 것.
- (4) 景氣變動的이 아니고 構造的인 特質을 가진다는 것.
- (5) 失業이 아니고 就業에 관한 規定을 特質로 한다는 것.

위의 大部分의 論議는 다음과 같은 論理에 基礎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첫째로 過剩人口가 存在하며 둘째로 모든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一種의 雇傭狀態에 處해 있

으며 끝으로 不必要하게 雇傭된 勞動의 限界生産物이 零인 경우 등등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게 된다.

그런데 農業部門에는 상당한 量의 潛在失業이 存在한다는 研究는 그밖에 버크⁽⁵⁾, 와리너⁽⁶⁾, 로젠스타인·로단⁽⁷⁾ 및 만텔바움⁽⁸⁾ 등에 의해서 이룩된 바 있으나 이들의 潛在失業의 存在에 대한 肯定的인 見解와는 달리 潛在失業의 存在를 否定的인 側面에서 研究를 試圖한 슐츠⁽⁹⁾의 研究結果도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産業의 高度化 및 急速化에 따라서 農村의 農業勞動人口가 非農業部門으로 流出·移動되었음에도 不拘하고 農業은 아직도 他産業에 比해서 많은 勞動力人口를 包容하고 있음으로써 農村過剩人口問題를 擱고 있다는 것은 어떤 要因에 基礎되어 있음인가를 究明하여 보기로 한다.

農村過剩人口問題는 非農業部門에서의 過剩人口를 吸收 轉化하지 못하고 있다는 客體的 與件造成的 未備要因이 指摘되고 있는 것이 一般的이다. 이와 같은 內容에 焦點을 두고 勞動資源移動의 不完全 및 摩擦面에서 農村過剩人口나 要因을 接近하는 代表的인 學說로서 摩擦說⁽¹⁰⁾을 찾아볼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農村過剩人口의 造成要因에 대한 理論的 接近으로서 農家所得의 混合所得⁽¹¹⁾으로서의 誇張的 評價에 의한 自發的 低所得就業의 農業就業構造가 바로 農村過剩人口의 造成要因이라 보는 所得效果說⁽¹²⁾이 있고 獨立經營者로서의 農民地位와 農村의 生活環境에 대한 特殊評價에 基礎되어 農村人口의 農村滯留가 具體化되고 이에 의한 農村過剩人口의 存在가 있게 된다는 環境效果說⁽¹³⁾ 등이 있으며 同時에 農村過剩人口의 造成要因을 農村의 人口增加率의 高水準條件에서 解明하며 接近하려 하는 人口增加說⁽¹⁴⁾ 등이 있음을 찾아볼 수

(5) John L. Buck, *Chinese Farm Econom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0.

(6) Doreen Warriner, *Economics of Peasant Farming*,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39.

(7) P.N. Rosenstein-Rodan, "Problems of Industrialization of Eastern and South-Eastern Europe," *Economic Journal*, June-September 1943, pp. 202~211.

(8) K. Mandelbaum, *The Industrialization of Backward Areas*, Oxford: Basil Blackwell, 1945.

(9) Theodore W. Schultz, "The Role of Government in Promoting Economic Growth," in L.D. White, ed., *The State of the Social Scienc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6, pp. 372~383.

(10) D.G. Johnson, "Function of the Labor Market," *Journal of Farm Economics*, Feb. 1951.

(11) 混合所得이란 獨立經營 및 自家經營으로서의 農家の 存在를 地主, 農業企業家 및 賃金勞動者의 複合的 存在로 보고 그들 存在로부터 얻는 所得 즉 地代所得, 利潤所得 및 賃金所得의 複合으로 본 所得概念을 말한다.

(12) 大川一司, 『農業의 經濟分析』, 1956, 第八章.

(13) E.O. Heady, "Basic Economic and Welfare Aspects of Farm Technological Advance," *Journal of Farm Economics*, May 1949.

(14) G.S. Shepherd, *Agricultural Price and Income Policy*, 1952.

있게 된다.

또한 農村過剩人口의 要因을 農業部門과 非農業部門의 勞動所得比의 差異에도 不拘하고 農民으로 하여금 農業에 執着케 하는 다음의 8個項目에 聯關된 經濟的・社會的 要因의 作用 속에서 農村過剩人口가 存在하게 된다는 見解⁽¹⁵⁾도 있다.

- (1) 都市와 農村과의 小賣價格差
- (2) 價格以外의 要因에 의한 都市와 農村間의 生活費差
- (3) 熟練度の 差
- (4) 土地에 대한 魅力과 執着心의 作用
- (5) 不況中에 있어서의 安全性과 活動性的의 保障
- (6) 非農業部門에로의 職業移動困難性
- (7) 社會的인 非移動性
- (8) 個人的인 非移動性 및 慣習

農村過剩人口의 造成要因에 대한 위의 理論接近이나 學說들이 모두 重要한 것임을 否定할 筈이 없으나 그러나 우리의 現實에 있어서 가장 肯定的이며 現實的인 農村過剩人口의 造成要因은 人口增加說에 많은 바탕을 두고 있다 함을 看過할 수 없는 것도 事實이다. 특히 人口增加抑制의 唯一한 手段인 家族計劃實踐의 不振 및 農村出産力水準, 初婚年齡水準 그리고 婦女子들의 期待子女數에 대한 人口行態에 依存되어 있는 事實을 밝혀 볼 수 있게 된다.

(1) 家族計劃實踐의 不振

1960年代初 政府가 最初로 經濟開發을 本格的으로 推進함에 있어 人口增加抑制을 위한 家族計劃事業을 經濟開發計劃의 一環으로 採擇하여 國家事業으로 推進한 바 있거니와 家族計劃事業의 實踐率이 都市보다 農村이 낮은 水準에 있음을 찾아볼 수 있게 된다.⁽¹⁶⁾

즉 1964年 以後 10餘年間에 걸쳐서의 避妊實踐率의 變動趨勢를 보면 都市地域은 19%에서 34%로 약 2배의 增加를 보이고 있는 反面에 農村地域에서는 6%에서 34%로 5.7배의 增加率로서 實踐을 加速化하고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不拘하고 아직도 農村이 都市보다도 實踐率이 낮은 水準이어서 그의 不振을 免치 못하고 있다는 것은 農村人口增加가 制動되지 못하고 있다는 結果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農村出産力水準의 高位

우리나라의 都市와 農村의 出産力水準을 比較 檢討해 보면 都市地域일수록 出産力이 낮

(15) J.R. Bellerby, *Agriculture and Industry Relative Income*, 1957.

(16) 家族計劃研究院, 『韓國家族計劃圖譜』, 1975.

으며 農村地域의 出産力은 높은 水準에 있다. 즉 都市化의 傾向과 出産力은 西歐社會의 出産力低下의 初期段階과 마찬가지로 逆相關關係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都市 및 農村의 出産力差異는 初婚年齡의 差異, 所得, 教育, 文化的 背景, 子女觀의 複合的 要因에 의한 것이다.

家族計劃院의 全國家族計劃 및 出産力調查結果에 의하면 地域別 合計出産力은 都市地域에서는 1968年의 3.73에서 1971년에 4.00으로 上昇되었다가 1973년에는 3.36으로 低下傾向에 있음을 볼 수 있다. 農村의 경우도 都市와 類似한 形態로 變動하여 1968년에 5.33, 1971년에 5.69이던 것이 1973년에 이르러서는 4.70으로 低下傾向에 있음을 볼 수 있으나 農村의 合計出産力이 都市의 그것에 比하여 越等히 높다는 것은 農村人口의 過剩化에 拍車를 加하고 있는 要因의 一環이 되고 있다는 事實에서 注目된다(〈表 5〉 參照).

〈表 5〉 地域別 年齡別 出産率 및 合計出産力(1968~1973) (單位: 千名當)

區 分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都市	15~19	6	6	7	3	5	7
	20~24	189	141	179	139	118	104
	25~29	294	267	285	327	343	284
	30~34	162	186	156	220	150	195
	35~39	81	72	71	86	54	50
	40~44	14	14	12	25	12	13
	45~49		7				
	合計出産力 (TFR)	3,730	3,465	3,550	4,000	3,410	3,265
農村	15~19	15	18	9	24	14	14
	20~24	193	253	217	266	259	206
	25~29	356	326	371	377	369	324
	30~34	235	250	241	260	245	249
	35~39	143	166	164	105	149	117
	40~44	113	36	82	95	30	25
	45~49	9	2	22	11	11	5
	合計出産力 (TFR)	5,330	5,225	5,530	5,690	5,385	4,700

資料: 家族計劃研究院, 『1973年 全國家族計劃 및 出産力調查』(1974).

(3) 初婚年齡의 低位水準

農村의 出産力의 高水準이 農村勞動人口의 加速化에 重要な 要因이 되어 있거니와 그것은 農村의 初婚年齡의 低位水準에 聯關되어 있는 結果의 것이라 함도 看過할 수 없다.

家族計劃研究院에서 調査 研究된 初婚年齡의 變動趨勢와 狀況을 살펴보면 〈表 6〉에서와 같이 農村이 都市보다 初婚年齡이 빠른 水準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都市地域 및 農村地域이 다 같이 初婚年齡水準이 높아져 가는 傾向에 있음을 찾아볼 수 있기는 하나 1973년의 都市의 初婚年齡이 23.2歲임에 反하여 農村의 그것은 22.2歲로서 낮은 年齡水準에서 初婚이 이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고 이것이 農村人口의 過剩化 및 加速化에 拍車를 加하고 있는 一面을 看過할 수 없다.

〈表 6〉 年度別 地域別 初婚年齡水準

地域別	1944~49	1950~54	1955~59	1960~64	1965~69	1970~73
全 國	17.1	19.2	20.4	21.7	22.4	22.8
都 市	17.4	19.7	20.8	22.2	23.2	23.2
農 村	16.9	18.7	20.2	21.4	21.4	22.2

資料：家族計劃研究院, 『1973年 全國家族計劃 및 出產力調査』 (1974).

(4) 婦女들의 期待子女數

婦女子들의 子女에 대한 欲望程度의 水準如何가 人口의 動態水準을 決定하는 要因이라 할 수 있거니와 이에 都市와 農村別로 본 婦女들의 期待子女數의 性向을 살펴보면 서울地域이 3.03名인데 反해 其他 都市地域에서는 3.41名으로서 相對的으로 높고 農村地域의 경우는 4.19名으로서⁽¹⁷⁾ 期待子女數에 대한 選好的 價値觀은 農村地域이 都市地域보다 훨씬 강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 밖에 農協調査部에서 調査한 農民들의 子女數 및 子女形態에 대한 研究結果⁽¹⁸⁾에 의하면 子女數에 관한 價値觀은 政府의 強力한 人口政策 및 啓蒙活動에 의 해 크게 變動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즉 農民들이 바라는 子女數는 3名을 願하는 應答이 41.6%로서 가장 많으며 다음은 2名の 24.9%, 4名の 21.9%의 順으로 나타내고 있는 反面에 5名 以上을 願하는 應答은 11.9%에 不過하다.

그러나 바람직한 子女形態에 대한 態度는 아직도 農民들의 大多數가 多男型을 願하고 있다. 즉 바람직한 子女形態로서 男兒2, 女兒 1의 形態를 願하는 農家가 37.6%로 가장 높은 比重을 占有하고 있으며 다음은 男兒 1, 女兒 1이 19.7%, 男兒 2, 女兒 2가 15.2%, 男兒 3, 女兒 2이 7.0%의 順으로 되어 있고 女息만을 願하는 農家は 全無하여 男子選好形態를 나타내고 있다.

III. 農業勞動人口의 年齡別 및 性別 就業構造

農業勞動人口의 年齡別 就業構造를 全產業과 對比해서 살펴 보면 20~29歲가 17~25%,

(17) 家族計劃研究院, 『1973年 全國家族計劃 및 出產力調査』, 1974.

(18) 農業協同組合中央會, 『農協調査月報』, 1978年 3月號, p.4.

30~39歲가 26~32%, 40~49歲가 19~21%, 50~59歲가 13~16%, 60歲 以上은 4~7%線을 각각 보여 주고 있다.

한편 農業勞働人口에 對應한 鑛工業部門과 社會間接資本部門에서의 勞働人口의 年齡別 構造를 살펴보면 20~29歲가 27~30%, 30~39歲가 18~23%, 40~49歲가 12~17%, 50~59歲가 5~7%, 60歲 以上이 1%線의 比率을 차지하고 있고 社會間接資本部門에서는 20~29歲가 22~23%, 30~39歲가 30~33%, 40~49歲가 22~23%, 50~59歲가 9~10%, 60歲 以上이 2~3%線을 占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⁹⁾

이로부터 14~49歲의 生産年齡層이 農業部門에는 僅少하게 占有되어 있는 反面에 鑛工業 및 社會間接資本部門에서는 生産年齡層이 相對的으로 偏在되어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한편 老齡層의 分布比率은 農業部門이 다른 產業部門에 比해서 越等히 높게 나타나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農家の 男女別 從事上地位別 就業者內譯⁽²⁰⁾을 살펴보면 男子의 경우 自營이 壓倒的으로 높은 比率로 되어 있기는 하나 家族從事者의 比率은 낮아져가는 傾向에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는 反面에 女子의 경우 自營의 比重은 男子에 比하여 낮은 水準에 있기는 하나 그의 比率은 1965年의 14.6%에서 1974年에 이르러 19.5%로 增加傾向을 示顯하고 있으며 家族從事者의 女子比率이 무려 70%線 以上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農村婦女子의 農業從事에의 積極的인 參與가 이룩되어 있다는 事實과 더불어 農業勞働人口의 婦女化現象를 實證하고 있다는 點에서 注目된다고 할 수 있다.

더욱 年齡別 性別 農家人口의 構成關係를 다음의 資料를 中心으로 살펴 보면 農家の 勞働力事情과 直結되어 있으며 勞働力의 主軸이라 할 수 있는 生産年齡層인 14歲~49歲의 經濟活動人口가 1975年의 46.8%에서 1976年에 47.2%로 增加하고 있기는 하지만 絕對值로서는 159千名이나 減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²¹⁾

이로부터 農業勞働力은 量的인 面에서 減少되고 있으며 質的인 面에서도 큰 改善이 없는 狀態에 있음을 發見할 수 있음과 同時에 20~49歲階層에서의 農業勞働人口의 婦女化現象를 살펴 볼 수 있게 됨으로써 農業勞働人口의 老齡化 및 婦女化에 따른 質的인 人口資源의 確保가 重要한 課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農林業就業者의 男女別 動向을 살펴보면 1963~1976年間에 男子就業者는 4.3%의 增加를 보인 反面에 女子就業者는 같은 期間에 31.4%가 增加되었으며, 이에 따라 女子就業

(19) 經濟企劃院, 『經濟活動人口年報』 參照.

(20) 經濟企劃院, 『經濟活動人口年報』 및 『韓國統計月報』, 1975.9 參照.

(21) 農業協同組合中央會, 『農協年鑑』, 1977, p.37.

〈表 7〉 男女別 農林業就業者

(單位：千名)

年 度	總 計	男 子(%)	女 子(%)
1963	4,644	2,869 (61.8)	1,775 (38.2)
1965	4,603	2,821 (61.3)	1,782 (38.7)
1968	4,582	2,698 (58.9)	1,884 (41.1)
1970	4,826	2,791 (57.8)	2,035 (42.2)
1972	5,110	2,881 (56.4)	2,229 (43.6)
1974	5,304	3,040 (57.3)	2,264 (42.7)
1976	5,323	2,991 (56.2)	2,332 (43.8)

資料：經濟企劃院

者의 構成이 1963年의 38.2%에서 1976년에는 43.8%로 增加되고 있는 事實에서 農業勞働人口의 婦女化現象을 뚜렷이 알 수 있게 된다(〈表 7〉 參照).

그런데 農業生産에 從事하는 勞働力의 減少傾向 가운데 直接要因으로서 注目되는 것은 新 規學校卒業者의 就農動向에서 問題가 提起되고 있다.

1965~1976年間 各級學校 新規卒業者의 進路狀況을 보면 中學校의 경우 進學率이 높아지면 서 就業率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農業就業者는 絕對數에 있어서 減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76년에 651.1千名중 就業者는 31.4千名이고 이 가운데 農業就業者는 10.3千名에 不 過하였다. 또한 就業者 가운데 農業就業者의 比重은 1965年만 하더라도 71.4%이었으나 1972년에는 39.2% 그리고 1976년에는 32.8%로 繼續的인 減少를 나타내고 있다(〈表 8〉參照).

〈表 8〉 中學校卒業者의 進路推移

(單位：千名)

年 度	卒業者	進學者	就業者(A)	農業就業者(B)	B/A(%)
1965	209.6	137.8	21.3	15.2	71.4
1967	270.6	185.5	16.6	8.7	52.4
1970	364.2	252.6	19.2	6.8	35.4
1972	467.7	318.4	23.2	9.1	39.2
1974	554.4	374.7	28.4	11.1	39.1
1975	629.6	475.2	32.3	11.0	34.1
1976	651.1	500.2	31.4	10.3	32.8

資料：文教部, 『文教統計年報』(1977).

한편 高校卒業者의 경우에도 進學率이 높아지는 傾向에 있을 뿐만 아니라 就業率 또한 높 아지고 있다. 그러나 農業就業者는 每年 減少되어 1976년에 總就業者에 대한 農業就業者의 比重은 8.5%로 낮아지는 傾向에 있다(〈表 9〉 參照).

그밖에 大學의 경우에 農業就業者의 絕對數에 있어서 漸減傾向은 물론 比率面에서 顯著 히 減少되는 樣相에 있음을 찾아 볼 수 있게 된다(〈表 10〉 參照).

〈表 9〉 高校卒業者の 進路推移

(單位：千名)

年 度	卒 業 者	進 學 者	就業者(A)	農業就業者(B)	B/A(%)
1965	129.2	36.5	28.5	8.7	30.5
1967	137.5	40.5	29.6	4.6	15.5
1970	173.9	49.2	49.0	4.8	9.8
1972	205.6	57.8	54.3	5.5	10.1
1974	234.9	62.1	67.7	6.5	9.6
1975	310.1	73.7	90.5	8.8	9.7
1976	367.3	78.7	108.0	9.2	8.5

資料：文教部, 『文教統計年報』(1977).

〈表 10〉 大學卒業者の 進路推移

(單位：名)

年 度	卒 業 者	進 學 者	就業者(A)	農業就業者(B)	B/A(%)
1965	32,084	2,945	15,279	457	3.0
1967	40,961	2,821	22,695	409	1.8
1970	38,314	2,120	23,760	658	2.8
1972	40,826	2,240	22,715	371	1.6
1974	42,237	2,820	21,704	385	1.8
1975	45,316	2,895	26,484	299	1.1
1976	47,313	3,275	28,554	316	1.1

資料：文教部, 『文教統計年報』(1977).

위에서의 各級學校卒業者の 就業者 가운데 農業就業者의 漸減傾向은 農業에 從事케 하는 質的인 人的 資源의 確保와 人力開發이 얼마나 重要한 課題가 되는 것인가를 示唆하고 있다는 點에서 注目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內容은 日本의 農業教育의 現況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最近 日本의 農業就業構造도 青年農業者의 農業就業減少로 劣勢化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要因으로는 新規卒業生 가운데 農業就業者가 顯著히 減少되고 있다는 事實이 指摘되고 있다.

즉 農家子弟의 新規卒業生 가운데 農業에 就業하는 者は 1965年만 하더라도 68.0千名이 었으나 1970년에 이르러서는 36.9千名으로 減少되었고 1976년에는 10.2千名으로 低下되어 있다는 事實에서 뚜렷하다(〈表 11〉 參照).

더우기 日本의 全國農業會議所에서 實施한 農業高校生의 就業意向 등에 관한 調査結果⁽²²⁾를 살펴보면 日本의 경우도 農村勞働人口의 質的인 資源確保問題가 重要한 問題로 提起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즉 이 研究調査結果에 의하면 農業就業意向이 53.1%이고 他産業就業意向이 46.9%로 農

(22) 日本全國農業會議所, 『農業高校生就業意向 등에 관한 調査結果』, 1973.

〈表 11〉 日本農家子弟의 新規學校卒業狀況

(單位: 千名)

區 分		1965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總 計	卒業者	1,334.7	1,161.6	1,130.3	1,044.0	1,007.0	992.0	917.6	853.7
	進學	688.9	632.9	638.7	616.3	660.5	619.7	577.5	544.2
	就業	598.4	496.6	460.1	401.6	380.3	348.6	311.6	281.5
	農業就業	68.0	36.9	31.9	22.0	18.6	14.4	9.9	10.2
中 學 校	卒業者	898.1	619.4	589.2	539.3	500.5	496.1	430.7	395.9
	進學	603.5	501.8	496.2	470.4	441.4	452.5	400.3	373.6
	就業	275.2	111.7	87.7	65.7	55.5	46.3	27.7	20.3
	農業就業	38.2	9.5	6.7	4.1	3.2	1.7	0.8	0.7
高 等 學 校	卒業者	934.1	472.6	469.8	435.1	439.5	426.5	415.3	385.7
	進學	81.4	123.1	133.7	135.5	150.1	157.4	166.6	160.3
	就業	288.5	331.0	317.5	284.7	274.6	255.3	230.8	209.0
	農業就業	27.0	24.6	23.1	15.9	13.7	11.0	8.1	8.1

資料: 農林省, 『農家就業動向調査』(1977).

業就業를 願하는 學生이 많음을 보게 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러나 農業就業意向者들의 內容을 살펴보면 卒業直後就農은 17.5%이있으며 한번 他産業에 就業한 後에 農業에 就業하겠다는 것이 17.5%이고 나머지 18.1%는 農業技術이나 經營에 관한 研修나 大學 등에서 學習한 後에 就農하겠다는 調査結果에서 營農主體者의 有能한 人的資源確保가 重要하다 함을 指摘할 수 있게 된다.

日本에서의 젊은 農業高校卒業生들의 營農定着의 忌避 및 營農姿勢의 缺如 등의 現象形態는 우리나라의 農高卒業者의 農業就業率이 低調하고 營農定着을 忌避하고 있다는 點에서 問題의 深刻性을 認定할 수 있게 된다(〈表 12〉 參照).

〈表 12〉 農高卒業生就業動向

(單位: 名)

年 度	卒業者	就業者	就業率(%)
1974	17,579	6,237	26.8
1975	17,942	6,766	37.7
1976	17,052	6,205	34.4

資料: 文教部

IV. 農業勞動人口問題의 課題

農村에 있어서 人口問題는 위에서의 分析 檢討에서와 같이 農業勞動人口의 過剩問題와 農業勞動人口의 老齡化 및 婦女化에 따른 質的인 人的資源의 確保問題가 重要하다 할 수 있다.

1. 農業勞動過剩人口의 解消 및 生産化

農業勞動人口問題는 아직도 農業部門이 他產業部門에 比해서 많은 勞動人口를 包容하고 있음으로써 過剩人口問題를 낳고 있다. 이리하여 過剩人口의 解消 및 生産化는 重要한 課題가 된다.

(1) 農村過剩人口의 生産化

첫째, 主要產業의 農村地域에로의 地方分散配置를 통한 農外就業機會의 造成과 더불어 그에서의 農業勞動人口의 生産化를 期하도록 한다.

둘째, 農村地域에 潛在되어 있거나 賦存되어 있는 副業資源을 開發 擴大하여 副業從事에 의한 農業勞動의 生産化 및 效率化를 期하도록 한다.

세째, 農業經營에 대한 合理的 및 複合的 經營組織에 의한 農業勞動의 生産化를 期하도록 한다.

(2) 人口行動⁽²³⁾의 行態變化에 의한 過剩人口解消

첫째, 家族計劃實踐에 대한 積極的인 態度를 確立한다.

人口增加抑制를 위한 家族計劃事業이 그의 實踐的인 受容態勢面에서 積極的이고 肯定的인 面이 缺如되어 있거나 不振하고 있다는 事實⁽²⁴⁾에서 家族計劃의 實踐에 의한 人口過剩解消가 重要한 課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家族計劃의 實踐에 대한 積極的인 意識과 姿勢確立이 모든 農民과 모든 農村地域에서 實質化되기 위해서 이에 대한 啓蒙과 人口教育에 대한 役割이 重要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人口問題에 대한 意識을 強化한다.

人口問題에 대한 意識은 最近에 와서 資源의 限界性和 關聯하여 全人類의 將來問題로서 世界的인 關心 속에서 높아져가고 있으며 특히 國土가 狹小하고 賦存資源이 不足한 우리나라와 같은 開發途上國에 있어서의 人口의 急速한 增加는 國民의 生活水準과 福祉의 向上을 制約하는 根本的인 要素의 하나로서 가장 重要하다는 모든 國民의 깊은 認識 속에서 人口過剩解消에 대한 意識態度가 크게 高潮되어 있는 것이 事實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요즘 一部에서는 家族計劃의 實踐에 대한 限界性を 主張하고 있는 例와 더불어 學生들을 相對로 人口에 관한 知識과 意識에 대하여 調查研究된 結果⁽²⁵⁾에서 問題點이 深刻하게 指摘되고 있는 點에서 우리의 關心은 크다 할 수 있다.

(23) 人口行動이란 社會의 人口過程에 영향을 주는 知識, 知覺, 動機, 態度, 價値觀 등의 心理的 特性을 말한다.

(24) 家族計劃研究院, 『韓國家族計劃圖譜』, 1975.

(25) 李相周, 『初中高等學生들의 人口知識 및 態도의 發達에 關한 研究』, 韓國行動科學研究所, 1975. 鄭範謨, 『大學生들의 人口知識 및 態度에 關한 研究』, 1976.

즉 韓國과 世界의 人口規模에 대한 事實的인 知識調查에서 대체로 學年이 높아질수록 正答率이 높은 傾向에 있기는 하나 豫想外로 大學生의 正答率이 高校生보다 낮다는 것과 世界人口規模에 관해서 國民學生이 大學生이나 中學生보다 正確히 認識하고 있다는 事實에서 問題의 深刻性을 指摘할 수 있게 된다.

이로부터 教育水準이 높고 「매스·미디어」에 대한 接觸度가 높은 年齡層인 大學生의 正答率이 高校生보다 심지어는 國民學生보다 낮다는 事實은 하나의 커다란 問題를 提起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니와 이는 곧 人口問題에 대한 意識 및 知識에 대한 教育이 緊要하다 함을 우리에게 示唆하고 있다는 點에서 重要한 研究課題가 된다.

2. 農業勞動人口의 老齡化 및 婦女化에 따른 質的인 人的資源確保

한 나라의 經濟開發 및 成長發展은 開發에 있어서의 客體的 興件의 造成과 더불어 主體的 興件의 開發이 隨伴되고 併行될 때 可能하다. 특히 오늘날에 있어서 많은 學者들은 開發의 主要한 要素로서 主體的 興件을 重要視하고 있으며 그것은 人間資本⁽²⁶⁾의 重要性과 그에 대한 開發側面에서 論議되고 接近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이렇게 볼 때 質的인 人的資源의 開發 및 確保問題가 重要하다 함을 알게 되는 것이나 특히 우리의 경우 農業勞動人口의 移動現象에 따라서 農業勞動人口의 相對的인 減少內容이 青年男子層의 人的資源面에 集中됨으로써 이른바 農業勞動人口의 老齡化 및 婦女化現象을 낳고 있다는 事實은 農業勞動人口의 質的인 人口資源確保問題를 더욱 切實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農業成長發展의 興件造成強化

農村에서 有能하고 質的으로 優秀한 人的資源을 確保키 위해서는 技術訓練教育의 強化가 重要하며 同時에 農村價値觀의 確立에 대한 指導 및 教育이 絶對的으로 重要하다 함은 여기에서 說明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農村의 有能하고 優秀한 人材들이 農村에 永久히 定着 營農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또 하나의 重要課題는 農業成長發展을 위한 客體的 興件의 造成이라 할 수 있다.

즉 農業이 經濟的으로 誘導되고 發展되기 위한 適正한 農產物價格의 設定이 重要하고 農業의 成長 發展에 대한 積極的인 政策이 配慮되고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2) 技術訓練教育의 強化

農業勞動人口의 質的인 向上問題는 未熟練勞動者의 農業勞動人口를 熟練勞動化하는 技術訓練教育이 重要하고 특히 오늘날 農村에서 農業近代化의 促求手段으로서 重要視되고 있는

(26) T.W. Schultz,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61.

農業機械化의 推進에 있어서 緊要課題가 되고 있는 農業機械의 運轉 및 操作技術訓練을 통한 人的資源確保가 重要하고 同時에 營農技術에 대한 技術教育이 重要하다.

(3) 農業價值觀確立의 意識鼓吹

農業은 人間의 生存을 可能케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產業發展의 原動力이 되고 있다. 따라서 農業에 從事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와 같은 農業의 重要性에 대한 깊은 認識과 그의 使命感 그리고 矜持 속에서 農業에 從事케 하는 意識確立이 重要하다 할 수 있다. 그에 대한 課題로서 重要한 對象은 ① 農業은 모든 人間의 基本的인 生活必需品인 食糧을 供給하는 源泉的 機能 ② 工業部門에 대한 原料調達의 役割 ③ 工業部門에 대한 勞動力提供의 役割 ④ 工産物의 需要市場의 創造機能 ⑤ 資本蓄積과 外貨稼得에 대한 貢獻 등등이라 할 수 있다.

(4) 農村居住選好에 대한 態度確立

農村居住에 대한 選好態度與否는 農村에 定着하여 農業에 從事할 수 있는 質的인 人的資源確保를 위한 前提條件이라 할 수 있다. 이의 選好內容을 實證的으로 把握하기 위하여 調査 研究된 結果⁽²⁷⁾를 보면 國民學校 低學年(2年)學生들은 都市居住希望이 높으나 國民學校 上級學年(5年)兒童들과 中學生(2年)들은 反對로 農村居住希望이 더 높고 高校生들은 다시 높은 都市居住希望에 대한 態度를 나타내고 있다.

이로부터 高校生들의 都市居住希望은 都市와 農村의 여러 가지 現實的 與件과 機會에 대한 比較에서 緣由된 것이다 할 수 있기는 하나 盲目的인 都市居住希望을 冷却시키고 合理的인 居住地選擇은 하도록 誘導함이 重要課題라 할 수 있다. 이에 最近에 活潑히 展開되고 있는 새마을運動을 통하여 地域社會에 대한 鄉土愛, 農村生活을 위한 意識의 밝은 展望을 심어 주는 것이 重要한 課題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公寔없는 農村地域 그리고 豐饒한 農村地域에 定着토록 하는 指導와 教育이 重要한 課題라 할 수 있게 된다.

要 約

農業勞働人口問題는 農業勞働人口過剩의 人的資源解消問題와 農業勞働人口의 婦女化 및 老齡化에 따른 質的인 人的資源確保問題로 要約된다.

첫째, 農業勞働人口의 過剩資源을 生産化하여 效率化하기 위하여 外的으로는 地方分散政策의 強力한 推進에 의한 產業配置의 適正化를 期함으로써 生産化 및 解消를 講究하고 內

(27) 李相周, 『初中高等學生들의 人口知識 및 態도의 發達에 關한 研究』, 韓國行動科學研究所, 1975.

的으로는 營農의 合同的 組織에 의한 生産化를 期하도록 한다.

둘째, 農業勞動人口의 人的資源確保를 위해서 合理的인 適正農產物價格의 設定 施行과 더불어 土地基盤 및 農村生活環境의 改善 등 各部門에 걸친 合理的인 農業施策을 講究하여 農業을 魅力있는 產業으로 確立도록 한다.

세째, 農業勞動人口의 엘리트確保를 위해서 內外研修教育을 強化하고 營農定着을 希望하는 農大卒業者에 대한 營農定着資金規模의 擴大 強化와 그에 대한 繼續支援의 施行, 同時에 農業專門大學 및 農高卒業者에 대한 擴大 實施를 期하도록 한다.

네째, 農業勞動人口의 質的으로 優秀한 人的資源確保를 위해서 農民 및 젊은 世代들에 대한 農業觀確立을 위한 合理的인 政策樹立과 더불어 農業觀確立에 대한 啓蒙指導 및 人口教育의 強化를 期하도록 한다.

다섯째, 先導的인 農業經營을 행하고 있는 農村靑壯年에게 農業士資格을 附與하는 農業士制度를 確立하도록 한다. 農業士制度의 確立이야말로 젊은 農村靑壯年에게 職業觀의 確立과 矜持를 鼓吹케 하는 重要な 手段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參 考 文 獻

- [1] 家族計劃研究院, 『韓國家族計劃圖譜』, 1975.
- [2] _____, 『1973年 全國家族計劃 및 出產力調査』, 1974.
- [3] 農業協同組合中央會, 『農協調査月報』, 1978年 3月號.
- [4] _____, 『農協年鑑』, 1977.
- [5] 大川一司, 『農業の經濟分析』, 1956, 第8章.
- [6] 李相周, 『初中高等學生들의 人口知識 및 態度的 發達에 關한 研究』, 韓國行動科學研究所, 1975.
- [7] 日本農業會議所, 『農業高校生就農意向に關する調査結果』, 1973.
- [8] 鄭範謨, 『大學生들의 人口知識 및 態도에 關한 研究』, 1976.
- [9] 朱奉圭, 「農村人口移動에 關한 變遷과 性格에 關한 研究」, 『農業經濟研究』, 19輯(1977), 79~87.
- [10] Bellerby, J.R., *Agriculture and Industry Relative Income*, 1957.
- [11] Buck, J.L., *Chinese Farm Econom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0.
- [12] Heady, E.O., "Basic Economic and Welfare Aspects of Farm Technological Advance," *Journal of Farm Economics*, May 1949.
- [13] Johnson, D.G., "Function of the Labor Market," *Journal of Farm Economics*, Feb. 1951.

- [14] Kao, C.H.C., K.R. Amschel and Clark K. Eicher, "Disguised Unemployment in Agriculture: A Survey" in Carl Eicher and Lawrence Witt, eds., *Agriculture in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McGraw-Hill, 1964, 129~144.
- [15] Mandelbaum, K., *The Industrialization of Backward Areas*, Oxford: Basil Blackwell, 1945.
- [16] Nurkse, R.,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3.
- [17] Rosenstein-Rodan, P.N., "Problems of Industrialization of Eastern and South-Eastern Europe," *Economic Journal*, 53 (June-September 1943).
- [18] Schultz, T.W., "The Role of Government in Promoting Economic Growth" in L.D.O. White, ed., *The State of Social Scienc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56, 372~383.
- [19] Shepherd, G.S., *Agricultural Price and Income Policy*, 1952.
- [20] Warriner, D., *Economics of Peasant Farming*,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39.